

# All hail king Jesus (예수 왕께 만세)

(Verse 1)

There was a moment  
When the lights went out  
빛이 물러가려 한 순간에

When death had claimed  
Its victory  
사망이 이기려 했네

The King of love  
Had given up His life  
사랑의 왕 그 생명 주셨네

The darkest day in history  
흑암 가득한 그 날에

(Verse 2)

There on a cross  
They made for sinners  
죄인 위해 세워진 십자가

For every curse  
His blood atoned  
모든 저주 속죄했네

One final breath  
And it was finished  
마지막 호흡 다하셨지만

But not the end  
We could have known  
끝이 아님을 알았네

(PreChorus)

For the earth began to shake  
And the veil was torn  
땅이 흔들거리며 휘장 찢겼네

What sacrifice was made  
As the heavens roared

속제물 되신 주 하늘 외치네

(Chorus 1)

All hail

King Jesus

예수 왕께 만세

All hail

The Lord of heaven and earth

하늘과 땅의 주께 만세

All hail

King Jesus

예수 왕께 만세

All hail

The Saviour of the world

세상을 구원하신 주

(Verse 3)

There was a moment

When the sky lit up

하늘 밝히 빛난 그 순간에

A flash of light

Breaking through

강력한 빛이 임했네

When all was lost

He crossed eternity

모두 잃었으나 영원하신

The King of life was

On the move

생명의 왕이 임했네

(Pre-Chorus 2)

For in a dark, cold tomb

Where our Lord was laid

어둡고 차갑던 무덤 비었네

One miraculous breath

And we're forever changed  
기적의 그 숨결 우리를 변캐해

(Bridge 1)  
Let every knee  
Come bow before the King of kings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네

Let every tongue  
Confess that He is Lord  
모든 입이 주님을 시인해

Lift up your shout  
Let us join with all of heaven  
소리 높여 온 하늘과 함께 하네

Singing holy  
Singing holy  
찬양 거룩 찬양 거룩

Cry out holy  
Singing holy  
크게 거룩 찬양 거룩

### Open the Eyes of My Heart (내 맘의 눈을 여소서)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To see You high and lifted up  
Shining in the light of Your glory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 주시며

Pour out Your power and love  
As we sing holy, holy, holy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Holy, holy, holy  
I want to see You  
거룩 거룩 거룩  
주 보게 하소서

## 시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When I stop  
Focusing on myself

주를 보기  
시작할 때  
And start turning  
My eyes to You

주의 일을  
보겠네  
I can see You working  
Lord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For You transform  
My feeble nature

하늘의 꿈  
꾸게 하네  
And You give me  
Dreams of heaven

주님을 볼 때  
When I look to You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All my attention  
I focus onto You

살아 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When I feel the presence of  
The living King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My life will become  
The story that You write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You will begin Your good  
Works through who I am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When I'm changed  
By the Holy Spirit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All my fears  
Are taken away

주의 일을  
보겠네  
And I see You working  
Lord

황폐한 땅  
한 가운데서  
In the middle of

This ruined land

주님 마음  
알게되리  
I will get to know  
Your heart God

주님을 볼 때  
When I look to You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All my attention  
I focus onto You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When I feel the power of  
Your mighty hand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This world will become  
The kingdom that You rule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You will begin Your good  
Works through who I am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The glory of God  
Reigns on us and we see

내 마음의 중심을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예수께  
To Jesus, who knows  
The depth of my heart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 길로 나가네  
Step by step,  
I walk in His path

세상의 소리와  
방법을 낮추고  
Setting aside  
The world's noise and ways

새롭게 또 새롭게  
그 길을 따르네  
I follow anew  
The way He leads

내 안에 계신 이  
세상보다 크시니  
The One who lives in me  
Is greater than the world

내 삶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리라  
By faith, my life  
Will be made complete

예수의 사랑이  
무엇보다 크시니  
The love of Jesus  
Is greater than all things

굳게 닫힌 이 땅  
이제 회복 되리라  
This land once shut  
Shall now be restored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Lift your eyes  
And look to the heavens

영원한 영광의

그 빛을 보라  
Behold the light  
Of eternal glory

마음 열어  
새날을 보라  
Open your heart  
And see a new day

모든 것 이루실  
예수를 보라  
Look to Jesus  
Who will fulfill all things

## 세례 간증문 - 원조이

어릴 적부터 제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늘 들쭉날쭉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라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 그 말은 제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주일이 오는 게 두려웠고, 사람들이 찬양 중에 손을 들고 예배하는 모습이 이상하게만 보였습니다. 교회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했고, 몇몇의 말과 행동에 상처를 받아 결국 교회를 떠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이 하나님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마치 제가 원하지 않는 종교로 얹지로 밀려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많은 고통을 허락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늘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즈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던 때에 저는 마리화나를 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사교 활동이었지만, 점점 제 감정을 무디게 하고 피하고 싶을 때마다 찾는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그것 없이는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잘 수 없게 되었고, 그 상태는 몇 년간 이어졌습니다. 술도 비슷했습니다. 매번 통제력을 잃었고, 그만 마시겠다고 다짐했지만 잘못은 계속 반복됐습니다. 수업에도 나가지 않았고, 맨정신인 시간이 거의 없었으며, 친구들과도 멀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제 인생을 바꿔 놓은 몇 가지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술에 많이 취했던 어느 밤에 일어났습니다. 무심코 길을 건너다 차에 치일 뻔했는데,

길가에 있던 노숙자 한 분이 저를 불잡아 구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제 옆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 주셨고, 저는 이유도 모른 채 울었습니다. 슬퍼서 운 게 아니라, 그분의 말 속에서 아주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일을 금세 잊어버렸습니다.

1년쯤 후, 가족 여행 중 약을 다 써서 새로 구하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불안과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걸 가족에게 숨길 수 없었습니다.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제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저항하거나 논쟁할 힘조차 없었는데, 그 순간 1년 전 그 밤에 느꼈던 따뜻한 하나님의 존재감이 다시 느껴졌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조금 더 마음을 열게 되었지만, 금세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 무렵 저는 하나님께 대한 분노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거나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를 때도 있었고, 어떤 날은 불가지론자라고도 했지만, 그건 단지 말뿐이었습니다.

몇 달 후 새벽 두 시쯤, 술에 취해 길가에 앉아 있던 제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처음엔 술 취한 여자를 유혹하려는 사람인가 했지만, 놀랍게도 그는 예수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걸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처음으로 제 의지로 성경을 집어 들었고, 잠언서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읽기 시작하자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엔 지루하다고만 느꼈던 그 말씀이, 이번에는 이상하리만큼 생생하게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후 1년 정도, 성경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제 자리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가끔 교회에 나갔지만,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마음과, 믿게 된다면 지금까지 신뢰해 온 세상의 기준을 모두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두려움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제가 종교를 멀리했던 이유 중 하나는 ‘규칙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자유를 잃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워질수록, 나를 얹매고 괴롭게 한다고 생각했던 그 규칙들이 더 이상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발적으로 따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리화나에 의존하고 있었기에, 하나님께 그 욕구를 없애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처음엔 아무 변화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24시간만 피우지 말아 보거라. 나머지는 내가 하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잃을 것도 없다는 생각으로 시도했고, 그날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피우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 삶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신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 저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제 삶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제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인 된 저를 위해 이루신 모든 일들이 완전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솔직하게 제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 삶에 행하신 일을 이 자리에 있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종교적 광기로 보일 수

도 있겠지만, 저는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제 사랑을 숨기거나 말하기를 두려워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준 제 친구들에게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비록 믿음을 가지지 않았더라도, 이 자리까지 함께해 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들도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결국 저를 자유롭게 한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변화는 쉽게 오지 않습니다. 깊이 뿌리박힌 습관들은 도저히 끊을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단단히 닫혀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경험하면서 서서히 제 마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사랑이 자라면서 옛습관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제 삶을 바꾸셨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의 신앙 여정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계속해서 제가 예수님 안에서 받은 새 생명을 잘 지켜가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제 삶에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기도해 주세요.